

교회를 통해 받은 영적 은혜를 감사합시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한 해 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은혜도 크고 놀라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겠지만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를 더욱 감사합시다.

빈손을 들고 17년 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논현동 6층 마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공회를 구했고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반포동 교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대치동에 서울교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감사할 것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수 십 년 동안에도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17년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미진하고 온전치 않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하며 우리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까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땅 속에 묻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앞에 전개되는 새 세계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한숨 대신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하고 실의와 좌절대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개척자의 환희와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건국공신이나 개신장군처럼 착각하고 논공행상을 바라는 이가 있듯이 우리 중에 혹이라도 특대를 받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감사해야 할 감사보다 자신은 천대를 받고 있다고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 있는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군 다윗은 국토를 확장하고 국위를 사해에 선양하며 여호와와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림에도 후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되었다고 불평하는 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므로 모든 일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들로 만들어야 하며 내가 서있는 모든 곳을 천국화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해야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별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 사 이 중 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minster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웨스트minster 홀

교회 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Ⅰ부 (30대)		오전10시	401호
		Ⅱ부 (4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Ⅱ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Ⅲ부 (50대)		오전10시	401호
					Ⅳ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Ⅲ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Ⅴ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Ⅰ부	오전11시20분	603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Ⅱ부	오후2시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 가 족 부	Ⅰ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Ⅱ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Ⅲ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30분	602호
청년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3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요리문답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 ⅠⅡ부	오후 12시40분		901701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702호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T V	위성 채널 412 (CBS 기독교 방송) 매주 주일 오후 9시 (케이블 채널 시청가능지역 있음) 케이블 채널 42 (CTS 기독교 TV)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라디오	HLKY 98.1 MHz (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HLKX 106.9 MHz (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인터넷	기 독 교 T V : http://cts.tv	KISB 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CBS인터넷설교 : http://cbs.co.kr 중국어 인터넷 : http://c-highway.com	
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		

부 목 사	이규정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현상	황 광	전 도 사	지혜영	
교 육 목 사	임규현	이태훈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전도사	박광일 김은숙	
협 동 목 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학원선교전도목사 황선철						
선 교 사	강야콥·주한나·서홍위(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카자흐스탄), 스브로토마로·아조남혜(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박진아(감보디아), 조병만·김희정, 이상식·김정옥(인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이항명·손혜신(이스라엘), 김영호·서향정(러시아), 이경현, 김태식(군선교) Thawng Ngeih Mang·Zam Sian Tuang·Zing Nawn, Ram Cung·May Kya(미얀마), 김종일·백순미(티카노동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 중 윤

Rev. Lee Jong-Yun, Ph.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i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Fax.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자"
(Those who shine like the stars forever)

■ 다니엘서 12장 1-4절

오늘 본문말씀에 기록된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방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되어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Ⅰ.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언어도 다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나라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큰 빛을 비춘 인물(요세, 모세, 엘리야, 세레 요한, 바울)들은 아등고 곤고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비추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Ⅱ. 다니엘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방법은 안 사람입니다.

①히브리인을 멸시하고 천대한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②다니엘은 아등을 비추는 빛처럼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 성도들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③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는 가장 고상한 일을 한 지혜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단3:28절). 사자굴에서 살아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섬기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단6:25-27절). 지혜자는 생명구원을 성공적으로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④다니엘은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열매에 따라 따릅니다(눅9:17절이하). 천국에서 가장 큰상은 많은 생명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냐면 성공적인 전도를 하려면 큰 희생, 믿음, 열심,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Ⅲ. 다니엘은 생명구원은 영원히 빛나는 일임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면 하나가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됩니다. 누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14:13절) 오늘 세상 모든 것을 땅에 묻고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옳은 데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맺는 말

오늘 많은 이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내 입에서 친절, 사랑, 진실한 말이 나와야 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일군이 되시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교회설립 17주년 감사	
시 간	인 도	기 도	제10대 집사 9대 권사 임직협동권사 취임선교사 파송식	오후 5시 인도이중윤 목사, 설교 주연도 목사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이규정 목사	이규정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한상은 목사	임훈규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홍성주 장로		
암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목 도	다 합 계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1-2	인 도 자	성 시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찬 송	다 합 계
* 찬 송 Hymn	3(5)	다 합 계	기 도	이규정 목사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계	찬 송	다 합 계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3부	다 합 계	찬 송	다 합 계
	64(감사절1)		성 경	인 도 자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계	현 금	다 합 계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찬 송 Hymn	311(592)	다 합 계	설 교	설 교 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100:1-5	인 도 자	선교사파송, 집사권사임직,협동권사 취임식	말 은 이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계	* 찬 송	다 합 계
헌금,추수감사헌금 Offering		다 합 계	* 축 도	이중윤 목사
* 봉헌송 Offering Hymn	70(634)	다 합 계	* 주기도송	다 합 계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계		
설 교 Sermon	“우리가 부를 감사의 노래”	이중윤 목사		
(“The thanksgiving song that we sing”)		집 레 자		
* 성찬식 Holy Communion		다 합 계		
* 찬 송 Hymn	306(587)	설 교 자		
* 축 도 Benediction		다 합 계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새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음악감독: 이 영 조-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이영수	김정희	강민정	백송희
II부	할렐루야	열렸다. 하늘 문이	박정선	고성진	오자경	김현주
III부	임마누엘	주의 영광	G. F. Handel	류충기	이성심	김복희
찬양예배	베들레헴	송전가	P. J. Wilhousky	김정훈	오신옥	안진선
영어예배	예루살렘	추수감사절(성찬식)				
수요I부	호 산 나	위대한 주	M. W. Smith	서희숙	김윤지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전능하신 주 하나님	J. M. Martin	백경화	이순재	박해인
〈헌금송〉						
I부	고 등 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Felix Mendelssohn	한현숙		박승기
II부	그레이트랜드멜	When we all get to heaven	Tammy Waldrop	김경숙		
III부	아넨관현악단	Grace greater than our sind	Daniel B. Towne	임범창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제1권사회 월례회 및 기도회 / 26일(수) 오후 1시 101호 2. 제2권사회 월례회 및 기도회 / 26일(수) 오후 1시 501호 3. 1교구 교구 연합 모임(여자) / 28일(금) 오전 10시30분 501호 4. 3교구 금요기도회 준비 모임 / 28일(금) 오후 6시 식사 후 501호 5. 찬양대원 메시아 연합찬양 연습(모든 찬양대원 참여) / 29일(토) 오후 4시30분 503호 6. 전 도 / 23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력 - 모세선교화하나전도회, 70인전도대
인솔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총 로비에 버티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주변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5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도곡렉슬, 진달래, 대치 I -park)(603호) 오전 10시 중보기도팀(609호) 26일(수)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한나 전도회(104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제1, 제2 스테반회(한티공원) 27일(목) 오전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은마,미도,청실,삼성,대치현대,역삼럭키,국제)(603호) 오전10시 70인전도대 중보기도팀 (609호) 29일(토) 오후 3시 교역자회(한티공원) 오후 3-5시 70인전도대 토요일간팀, 모세 선교회(한티공원) 7. 금요기도회 / 28일(금) 오후 8시30분-101호, 주력: 3교구 (▶10시부터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102호)
☛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홀) 3. 교회설립 17주년, 추수감사절, 임직식 / 이번 주일은 우리교회가 설립된 지 17년이 되는 주일이며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선교사 파송식과 집사·권사 임직식, 협동권사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4. 가을일제심방 / 24일(월): 3-18 6-6 13-29 13-33 25일(화): 4-6 13-30 14-10 14-11 27일(목): 3-12 10-5 13-31 28일(금): 5-9 9-8 13-27 5.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베들레헴 홀(403호)에서 0-12개월 이하 영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월-4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5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돌봅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6.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7. 의료 상담 / 정형외과(이지동)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950-5597 8.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호실: 302-306호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9. 교육실(찬양대 연습실)에서 음식을 취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찬양대 연습실)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실(찬양대 연습실)은 오직 예배와 교육, 찬양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곳입니다. 친교를 위해 음식물을 취식하려는 부서는 801호 만나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도서실 이용안내 / 성도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도서실(교회1층 102호)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뒷면에 계속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병희	13-32	사라	이응남서명철	김정현	1-56	루디아	박이선이명희	박은향	3-11	대학부	김규화서양지
김혜영	13-9	에스터	박이선이명희	배규환	5-9	안드레	김익환김진호	최영미	7-6	고등부	박광일
이영옥	13-17	바울	임명숙최금봉	이미경	1-7	도르가	김명옥	송승호	3-17	대학부	박광서
강귀례	1-25	뵤뵤	박이선이유희	김세철	11-8	빌립	함은희	이예지		유년부	박이선이명희
조금숙	8-6	뵤뵤	박광일	신아령	11-8	도르가	함은희	박이진	교육1국	영아부	본인
이진희	3-17	뵤뵤	박광서	육종협	7-7	빌립	황보추자	이재산		영아부	본인
탁은희	7-6	루디아	박광일	황보은미	7-7	도르가	황보추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종량	1-7	안드레	김명옥	김지설	3-21	제2청년	김광룡				

앞면에서 계속	
11. 주차 안내 / 새가족이 주차할 곳이 없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행사관계로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실 예정이니 교회 종직자들과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회 주차장의 차량은 대치역 사거리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혼	
1. 김동욱 군(12교구 김성준 집사 김성영 권사의 장남)과 이수경 양(청년부)/ 29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2. 박정호 군과 김진희 양(1교구 김병덕 장로 정현숙 권사의 장녀)/ 29일(토) 오후4시 상록회관	

우리의 비전(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

사람은 떡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살 수는 없다.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갖고 살려는 사람에게 는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사랑을 받 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한다.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해야한 다.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다. 자신의 인위적 확신과 환 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신뢰도, 약속도, 질 서도 모두 깨어지고 말 것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진리는 인생에게 환상을 키우며 소망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삶을 위하여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셨다.

-이중윤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을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